

碩士學位論文

일본어 사역 표현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韓 孝 心

2010年 2月

# 일본어 사역 표현 연구

指導教授 金 勝 漢

韓 孝 心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韓孝心の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2月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	2
II. 일본어 사역문의 의미적 용법 .....	5
2.1 전형적인 사역문 .....	5
2.1.1 지시·명령 .....	6
2.1.2 허용 .....	7
2.1.3 방입·방치 .....	8
2.2 비전형적인 사역문 .....	10
2.2.1 상태·현상 .....	10
2.2.2 유발·인과 .....	11
2.2.3 피해·자책·공훈 .....	12
2.2.2 행위·조작 .....	13
III. 「に」격 사역문과 「を」격 사역문 .....	15
3.1 피사역자가 「に」격과 「을」격을 모두 취하는 사역문 .....	15
3.2 피사역자가 「을」격만 취하는 사역문 .....	16
3.3 피사역자가 「に」격만 취하는 사역문 .....	20
IV. 자동사 사역문과 타동사와 사역문 .....	22
4.1 자동사의 사역문 .....	22

4.1.1 자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는 경우	22
4.1.2 자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24
4.2 타동사의 사역문	26
4.2.1 타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는 경우	26
4.2.2 타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27
V. 「-せる」 타동사문과 사역문의 상관관계	29
5.1 형태적인 면	29
5.2 의미적인 면	31
VI. 결론	35
참고문헌	38
예문출전	40
Abstrat	41

<국문 초록>

일본어 사역 표현 연구

한 효 심

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김 승 한

일본어의 사역 표현은 「-せる」라는 형태적 특징과 더불어,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 사역 작용을 하였고, 피사역자가 동작을 실현하였다는 두 의미를 한 문장 안에 담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사역문을 다수 접해보면, 일반적인 「사역」의 의미 외에 보다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어 사역문은 타동사문과의 연속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법 형식으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せる」형태의 타동사문은 사역문과 가장 혼돈이 큰 부분이다.

사역문과 타동사문은 분명 다른 문법형식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사역표현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역문만이 가지는 고유의 문법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일본어 사역문의 의미적 특징과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고, 타동사문과의 변별 기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첫째, 일본어 사역문의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해보았다. 전형적인 사역문은 사역주가 피사역자의 행위를 도모하거나 허용하는 간접행위만을 하며, 실제적인 동작은 피사역자에 의해 실현된다. 사역 행위는 적극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그 유형에 따라 지시·명령, 허용, 방임·방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전형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사역주가 동작주로서 직접 행위를 하거나, 사역의지와 무관한 결과, 심리 혹은 사물의 상태나 현상을 표현하는 사역문들을 비전형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비전형적인 사역문에는 상태·현상, 유발·인과, 피해·자책·공훈, 행위·조작의 용법이 있었다.

둘째, 사역문의 구문적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피사역자가 취하는

격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역문에서 피사역자는 「に」격 혹은 「を」격으로 표현되는데, 타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를 「に」격으로 나타낸다. 자동사 중에서 의지동사의 사역문은 「に」격과 「を」격을 모두 취할 수 있으나, 「に」격은 피사역자가 스스로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사역자가 사역주의 직접적 혹은 강제적인 행위의 대상으로 표현될 때, 그리고 동작을 실현할 수 없는 비정물인 경우에는 「を」격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상태의 변화를 표현할 때에도 변화의 대상인 피사역자는 「を」격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자동사 사역문과 타동사 사역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의 경우는, 대상의 변화를 타동사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사역문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대립하는 타동사가 있는 자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가 스스로 행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타동사문과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타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에게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 동작 의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역문이 성립하지 않았다.

넷째, 「-せる」의 형태를 가진 타동사문과 사역문을 비교하여 보았다. 타동사의 사역문과 동일한 「-せる」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に」격의 피사역자가 나타나 있지 않고 동작주의 행위 대상만이 나타나 있는 경우는 타동사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동사의 사역문과 동일한 「-せる」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피사역자가 동작을 실현할 수 없다면 사역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타동사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역문의 의미적 용법에 포함되지 않고 동작주의 일방적인 행위만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타동사문으로 판단하였다.

# I. 서론

## 1.1 연구 목적

일본어의 사역 표현은 「-せる」라는 형태적 특징과 더불어,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사역 작용을 하였고, 피사역자가 동작을 하였다는 두 의미를 한 문장 안에 담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즉 행위를 도모한 사역주와 직접 동작을 실행하는 피사역자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어 사역문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전형적인 사역문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보다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 父親は息子に荷物を運ばせた。

(2) 子供を疫痢で死なせてしまった。

(森田良行 1988 : 64)

(3) 外套を脱がせてくれたり、日本服を着せてくれたり

(こころ p230)

(1)은 사역주가 동작을 지시하고 피사역자는 그 사역 작용에 의해 동작을 실현한 전형적인 유형의 사역문이다. 그러나 (2)는 사역주가 피사역자인 아들의 죽음을 도모하는 실제적인 사역 작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문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3)은 피사역자가 동작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주가 직접 동작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3)은 사역의 의미인 「벗게 하다」가 아니라 타동의 의미인 「벗기다」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사역 표현이란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를 사역의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보편타당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사역형 「着せる」와 타동사 「着せる」는 확연한 의미의 차이로 구분되어 있는데, 왜 「脱がせる」는 사역과 타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인지, 단순히 타동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명확한 원칙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실제, 사전에 기재된 타동사 중에는 사역의 의미와 경계가 불분명한 어휘들이 혼재되어 있다.

(5) 飲ませる／食わせる / 走らせる／楽しませる / 持たせる／急がせる…

특히 (5)처럼 사역형과 형태의 일치율을 보이는 「-せる」 형태의 타동사의 경우는 형태적인 특징만으로는 사역 표현과 구별이 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일본어 사역문의 의미적인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역문의 구문적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III장에서는 피사역자가 취하는 격조사에 대해, IV장에서는 사역문이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자동사 사역문과 타동사 사역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せる」의 형태를 가진 타동사문과 사역문을 비교 검토하여, 사역문과 타동사문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사역문의 의미 분류는 학자에 따라 분류방법과 기준, 그리고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용어 또한 다른 경우가 있다.

森田良行(1998)은 사역문의 표현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여, 「典型的な使役行為」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역문 중에는 의미적인 면에서 타동으로 보아야 하는 예가 있다고 논하며, 사역주의 일방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사역문의 경우는 「直接的他動行為」로 볼 수 있고, 유발의 의미를 가진 사역문의 경우는 외적인 요인이 대상에 작용한 것이므로 「間接的他動行為」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sup>1)</sup>

1) 森田良行(1988), 『日本語の類意表現』, 創拓社, pp39~63

孫東周(2005)는 사역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 사역주에게 행위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역주에게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역주의 동작에 의해서 실현된 것인지, 피사역자의 동작에 의해서 실현된



것인지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孫東周는 사역의 의미와 격조사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하며, 피사역자가 취하는 격(格)에 관하여서도 설명하였다. 2)

佐藤里美(1986)는 사역문을 「基本的な使役構造の文」과 「派生的な使役構造の文」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自動詞派生」의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피사역자가 「を」 격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意志的な自動詞」에서 파생한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に」 격을 취하기도 한다고 논하였다. 3)

青木伶子(1977)는 자동사의 사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もとなる自動詞に意志的性格が濃厚である場合には、一般に使役として受取られ、原自動詞に全く意志性見られない場合には「す」型は勿論「せる」型でも殆ど問題なく他動詞と見なされる。

(원 자동사에 의지적 성격이 농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원 자동사에 전혀 의지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す」형은 물론 「せる」형이라도 대부분 타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青木伶子は 「-す」「-せる」의 형태적 특징에 구애되지 않고, 사역의 뜻을 가진 동사는 「使役性他動詞(使役動詞)」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

2) 孫東周(2005), 『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 제이앤씨, pp117~144

3) 佐藤里美(1986), 「使役構造の文-人間の人間に対するはたらきかけを表現するばあい」 言語学研究会編 『言語学研究会の論文集-ことばの科学』(その1), むぎ書房, pp89~101

4) 青木伶子(1977), 「使役-自動詞・他動詞との関わりにおいて」 須賀一好・早津恵美子編 『日本語研究資料集-動詞の自他』(第1期 第8巻), ひつじ書房, pp108~120

野田尚史(1991)는 자동사의 사역문을 사용함에 있어, 그 자동사에 대립하는 타동사가 있는 경우는 행위의 대상이 사물이라면 타동사가 우선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도 타동사가 우선되지만, 그 사람의 「自主的な意志を強く表した

い時に限り)(자주적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에 한해)」 자동사의 사역문이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森田良行(2002)는 「-せる」 형태이더라도 사역 표현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本来「-す」形の他動詞だったものが、「-せる」形にまで拡大使用するようになった。語尾に「せる」があっても使役の助動詞ではない。

(원래 「-す」 형태의 타동사였던 것이 「-せる」 형태로까지 확대 사용하게 되었다. 어미에 「-せる」가 있어도 사역 조동사는 아니다.) 6)

학자의 관점에 따라 논증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선행연구의 다수가 사역과 타동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즉 타동사문과 사역문을 무관한 문법형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역과 타동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논증을 반복하며 거듭되리라고 본다.

5) 野田尚史(1991), 「文法的なヴォイスと語彙的なヴォイスの関係」 須賀一好・早津恵美子編 『日本語研究資料集-動詞の自他』(第1期 第8巻), ひつじ書房, pp201~204

6) 森田良行(2002), 「使役表現の諸相」 『日本語の文法発想』, ひつじ書房, pp181~200

---

## II. 일본어 사역문의 의미적 용법

일본어의 사역문은 일반적으로 「が」격의 사역주와 「に」격 혹은 「を」격의 피사역자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역문은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사역 작용을 하였고, 피사역자가 동작을 하였다는 두 의미를 한 문장 안에 담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역문의 사례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의적이어서, 이러한 특징만으로 사역문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일본어 사역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적 특징을 가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 2.1 전형적 사역문

사역문에서 사역주의 역할이란 피사역자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며, 그 사역 행위는 적극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6) a. 父が指示をした。それで息子は荷物を運んだ。

→ b. 父は息子に荷物を運ばせた。

(7) a. 父が許してくれた。それで息子はコンサートに行った。

→ b. 父は息子をコンサートに行かせた。

(6a), (7a)는 상대의 행위를 종용하거나 허용한 동작주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동작주의 각각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두 동작주의 행위를 각각 설명하지 않아도 (6b), (7b)처럼 사역문의 형태를 통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사역 행위를 하는 사역주와 직접 동작을 실행하는 피사역자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행위를 실행하는 것은 피사역자이므로 사역주는 피사역자의 행위를 종용하거나 허용하는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사역주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 사역 작용을 받아 피사역자가 행위를 한 것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전형적인 사역문의 형태라 할 수 있다.

### 2.1.1 지시명령

사역주의 사역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사역문으로, 피사역자는 사역주의 적극적인 사역 작용을 받아 동작을 행하게 된다.

(8) ずっと勉強せ勉強せって、まるで学校の先生みたいに、タミちゃんに本を読ませて  
きた。 (母 p139)

(9) 先生は奥さんと呼んで、必要の金額を私の前に並べさせてくれた。 (こころ p61)

(8)는 사역주가 피사역자인 「タミちゃん」에게 「勉強せ」라는 지시·명령의 직접적인 사역행위를 통해 책을 읽게 했다는 뜻의 사역문이다. (9) 또한 「奥さんと呼んで」라는 문장을 통해 사역주인 「先生」이 직접 피사역자인 「奥さん」에게 지시·명령하여 「金額を並べる」 행위를 하도록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いやおうなしに縁を結ばせて、あの娘の持主をはっきりきめて  
(青空文庫, 中里介山『大菩薩峠』)

(11) めしのことがめんどうなら俺の嫁にさせるから黙っている (樞山 p49)

(10), (11)은 (8), (9)의 「勉強せ」「呼んで」와 같이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지시·명령하는 구체적인 사역행위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いやおうなしに~させて」「~させるから黙っている」와 같은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 사역주의 의향·의지대로 피사역자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강제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사역문이다.

7) 권승림(1994), 「일본어 사역표현 재고:문법이론의 교육적 활용을 지향하며」 『일본연구』

(제2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p448

“전형적인 사역문이란, 사역주와 피사역자, 기본문에 있어서의 3項을 취하며, 사역주의 사역행위가 직접동작이 아닌 간접적 행위를 행한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12) 中国に日本を認めさせようとしたのでしょね。 (司馬 p76)

(13) 子規を長く生かし、ほうほうを歩き回らせたかったですね。 (司馬 p210)

(12), (13)은 지시·명령의 형태나 강제성이 전면에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させようとした」「~させたかった」와 같은 표현을 통해 피사역자의 행위에 사역주의 의

향·의지를 반영하고자 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森田(2002)는 「他者에게 명령하여 뭔가를 시키거나 하게 하는」 사역의 형태를 「使役(やらせ)」라 하고, 「피사역자가 자연히 그런 행위를 하도록 도모하는」 사역의 형태를 「指令(しむけ)」라 분류하고 있다.<sup>8)</sup> 이 논문에서는 사역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그리고 사역주의 사역 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경우와 다소 약하게 표현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지시·명령<sup>9)</sup>으로 분류하였다.

### 2.1.2 허용

사역주의 사역 의지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역으로 피사역자의 의지나 행위가 표출되는 사역문의 형태가 있다.

(14) 内緒で車を運転させてくれる、職人刈り頭の背中が曲って顔も猿のような男だが、  
うちの運転手の中では一番話がわかるマーチャンだ。 (楢山 p137)

(15) 夏の日差しを避けるため、途中からは昼間はどこかの小屋で寝させてもらって、夜通  
し歩くことにしました。 (司馬 p119)

(16) この年まで舞台に立たせてくれる劇団は他にない。 (毎日新聞 2009.10.23)

(14)~(16)은 지시·명령, 강요와 같은 방법으로 피사역자의 행위를 종용하거나, 혹은 사역주의 의도대로 피사역자가 행위를 하도록 도모한 사역문의 형태는 아니다. 「~させてくれる」「~させてもらう」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역주의 허

8) 森田良行(2002), pp181~182 참조

9) 佐藤(1986), p103 참조

용하에 피사역자의 행위인 「運転する」「寝る」「舞台に立つ」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sup>10)</sup> 즉 사역주의 허가·인정이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피사역자의 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16)는 「この年まで」라는 표현으로 연령의 한계를 언급하며 뒤의 문장을 「~させてくれる~は他にない」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피사역자의 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을 다소 강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17) 妹が、腹が痛いんだよ、休ませてもらいたいんだよ。 (樫山 p156)

아울러 (17)와 같이 「~させてもらいたい」의 형식을 취하는 사역문은 상대에게 허락이나 양해를 구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 양식이다.

(18) 自分の子どもには自由にやらせている。おれからやれって言ったことはないけど、「レスリングをやりたい」と自分から言い出したから、 (毎日新聞 2009.6.20)

(19) ヤマハ発動機は7月1日、大人が幼児を2人同乗させてもいい自転車の基準に適合した電動アシスト自転車の新製品など2車種を発売する。 (毎日新聞 2009.6.24)

(18), (19)도 (14)~(16)과 마찬가지로 허용을 뜻하는 사역문이다. (18)은 사역주가 피사역자인 「子ども」의 희망대로 「自由に~させている」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역주가 피사역자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19)는 사역형과 허락·허가를 뜻하는 「~でもいい」를 함께 사용하여 「大人が幼児を2人同乗させてもいい」라는 허용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2.1.3 방임·방치

사역주가 피사역자의 행위를 허가·인정하는 정도를 넘어, 피사역자의 행위를 방임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표현한 사역문도 있다.

10) 青木伶子(1977), p115 참조

"사역 표현에 「~てやる」「~てもらう」를 첨가하면, 「許可」의 뜻이 한층 더 명확해진다."

(20) ドユパンと云ふ男が妙な癖のある男だと云ふことは、もう話した筈だ。だから己は何事も友達の勝手にさせて置く。 (青空文庫, 森鷗外訳『病院横町の殺人犯』)

—(21) 放っておけば情熱は失わせてしまいます。— (あなた p35)—

(20)은 피사역자의 행위를 허락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勝手に~させておく」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역주가 피사역자의 행위를 방임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1)는 「放っておけば」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 사역주가 방임·방관한다면 피사역자는 「情熱を失う」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2) 冷蔵庫の中で間違って凍らせてしまったほうれん草はもうダメになってしまったのに

(毎日新聞 2006.11.2)

(23) 生後11カ月の長男を車内に放置して死なせたとして

(毎日新聞 2009.8.28)

(22), (23)의 경우는 사역주의 부주의나 방임에 의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결국은 피사역자의 사태를 방치한 것이 된다. (22)는 「間違って」라는 표현을 통해 사역주의 부주의에 의해 「ダメになってしまった」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사역주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태를 방치한 것이 되는 셈이다. 즉, 피사역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피사역자가 자유로이 행동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되지만, 피사역자가 사물인 경우에는 사태를 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3)은 피사역자가 사람이기는 하지만, 「放置して」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사역주가 피사역자인 「生後11カ月の長男」을 「死ぬ」상태에 이르기까지 방치하였다는 결과를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는 사역문이다.

사역주의 허용 하에 피사역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허용의 사역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허락·인정의 선을 넘어 피사역자가 자유로이 행동하도록 방임하거나 사태를 방치하는 경우를 방임·방치의 사역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2 비전형적 사역문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형적인 사역문의 형태는 지시·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사역 행위이든 허용·방임과 같은 소극적인 사역행위이든 사역주의 사역 행위와 그 사역 작용을 받은 피사역자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역주가 사역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발된 비의지적인 결과 혹



은 현상을 표현하거나, 사역주 혹은 피사역자의 심리를 표현하는 사역문이 있다. 또한 사역주가 사역주로서의 역할 만에 머물지 않고 동작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역문이 있다.

(24) 生あたたかいウイスキーをシャツの間から胸と腹の皮膚につたわらせた。 (万延 p22)

(25) 彼は急いで車を走らせた。

(24)는 사역주의 사역행위가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피사역자 또한 행위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비정물로, 단순히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사역문의 형태이다. 그리고 (25)는 사역주가 동작주로서 직접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역문이다. 즉 피사역자가 실제적인 동작주인 전형적인 사역문과는 다른 유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역문들은 전형적인 사역문의 유형에서 벗어난 경우이므로, 비전형적인 사역문<sup>11)</sup>의 형태라 할 수 있다.

### 2.2.1 상태·현상

(26) 妻は、鼻孔から上唇を脂っぽく汗ばませたまま (万延 p19)

(27) 雪を重機で踏み固め、表面に水をまいて凍らせた特設コースは  
(毎日新聞 2009.2.18)

11) 권승림(1994), pp452~456 참조

“비전형적인 사역문의 유형에는 직접사역, 조작사역, 자발사역, 원인사역, 유사사역이 있다.”

(26)은 사역주인 「妻」의 신체 상태를 사역문의 형태로 표현한 경우로, 「鼻孔から上唇が汗ばむ」 현상을 행위를 하는 인물에 시점을 두고 표현하면 「鼻孔から上唇を汗ばませる」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27)은 사람이 아닌 사물의 상태 변화 혹은 현상을 표현한 사역문으로, 「凍る」 현상을 행위를 하는 동작주에 시점을 두고 표현하면 「凍らせる」의 형태가 된다. (26), (27)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변화 혹은 현상을 사역문의 형태로 표현한 경우는, 사역주의 사역 작용과 피사역자의 행위 관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사역문과는 다른 유형이다.

## 2.2.2 유발인과

- (28) 三河に來ますと、いろいろなことを思い出します。三河というところは思想を考えさせる土地ですね。 (司馬 p100)
- (29) 穴掘りは人にカタルシスをおこさせ、ソバは人を狂わせるものらしい。 (司馬 p109)

(28)은 「三河」라는 장소가 「思想を考える」 행위를 유발한다는 뜻의 사역문이며, (29)는 역시 「穴掘り」와 「ソバ」가 각각 「カタルシスをおこす」「狂う」 행위를 유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28), (29)는 사역주의 사역 의지나 피사역자의 행위에 대한 의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또는 특정 사물에 의해서 피사역자의 행위·상태가 유발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편, 사역주가 사역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역주의 행위가 분명한 원인이 되어 피사역자의 행위·상태가 초래된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 (30) 彼はシュエデンボルグがどうだとかこうだとか云って、無学な私を驚かせました。 (こころ p216)
- (31) 朝寝坊をして友達を1時間も待たせてしまった。(阪田雪子·倉持保男 1980 : 27)

(30), (31)은 피사역자의 행위·상태가 간접적인 형태로 유발된 것이 아니라, 사역주의 「シュエデンボルグがどうだとかこうだとか云って」「朝寝坊をして」와 같은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사역주가 「驚く」「待つ」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30), (31)의 「驚かせる」「待たせる」행위는 사역주의 지시·명령, 허용과 같은 사역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비 전형적인 사역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2.2.3 피해·자책·공훈

사역문의 형태를 빌어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피해가 되었음을 표현하거나, 반대로 사역주의 자책감이나 공훈 의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32) 買物のうちで一番私を困らせたのは女の半襟であった。…私は全く弱らせられた。

(こころ p101)

(33) 全く世話を焼かせるやつだ。 (阪田雪子・倉持保男 1980 : p27)

(32), (33)은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피해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사역문으로, 이와 같은 사역문은 피사역자인 「私」의 입장에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역주나 나에게 「困る」「世話を焼く」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표현이므로, 사역주의 입장이 아닌 피해를 입은 피사역자의 입장에서 표현되는 사역문이다.

반면, 피사역자의 행위·상태를 사역주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자책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34) 抱きしめたい、戦争で子供を死なせた婆さんを、抱きしめたい、その戦争に子供を追いやったことで眠れない爺さんを。 (「叫ぶ詩人の会」の歌, 「抱きしめたい」)

(35) 佐藤さん、ペットを死なせてしまったってひどく落ち込んでる。

(阪田雪子외2인 2003 : 118)

(34)는 사역주가 피사역자인 「子供」에게, 혹은 「子供」를 「戦争」에서 「死ぬ」하도록 지시·명령하거나 허용·유도했다는 의미의 사역문이 아니다. 사역주와 피사역자의 행위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기보다는 「戦争」으로 인해 「子供が死んだ」라는 상황, 즉 「戦争」으로 「子供を失った／子供を亡くした」상황에 대한 사역주의 자책감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35) 또한 「ペットが死んだ」경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주인 「佐藤さん」이 의도적으로 「ペットを死なせる」한 상황을 가정해볼 수도 있겠으나, 「ひどく落ち込んでる」라는 문장으로 미루어보아 (34)와 마찬가지로 「ペットが死んだ」상황에 대한 사역주의 자책감을 표현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피사역자의 행위·상태를 사역주의 공훈으로 인식하여 표

현하는 사역문도 있다.

(36) 息子を一流大学に合格させた。 (森田良行 2002 : 194)

(37) 僕がインテルに来た頃、クラブは長い間タイトルから遠ざかっていたんだ。だがその後、僕たちは3年連続でセリエ A 優勝を果たした。僕がインテルを17年ぶりに 勝たせたということだ。 (スポーツナビ 2009.9.11)

(36)은 피사역자인 「息子」의 「一流大学に合格する」 행위를 사역주의 공훈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37)은 「長い間タイトルから遠ざかっていた」 인테르 밀란<sup>12)</sup>을 사역주인 「僕」가 「17年ぶり勝たせた」라고 표현함으로써, 우승에 크게 공훈했다는 사역주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2.2.4 행위·조작

사역주의 사역행위가 피사역자의 행위를 종용하거나 허용하는 간접적 행위가 아니라, 사역주의 실제적인 동작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38) 僕は舌を縛ったまま背後から妻の両脇をかかえて立ちあがらせた (万延 p23)

12)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 클럽으로, 세리에 A에서 세 번 째로 많은 우승(15회)을 차지하였다.

(39) すぐにタコに末松つあんのふだん着を着せて、売れ残りのパンを風呂敷に包み、背中に負わせてやった。 (母 p47)

(38)은 사역주인 「僕」가 피사역자인 「妻」를 「両脇をかかえて」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직접 일으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39) 또한 「ふだん着を着せて」 「売れ残りのパンを風呂敷に包み」와 같은 사역주의 행위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背中に負わせる」 행위 또한 사역주가 직접 실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사역자가 실제적 동작주인 전형적 사역문과는 다른 형태로, 비전형적인 사역문으로 분

류할 수 있다.

(40) 行く先を言ってもろくすっぽ返事もしないで、車を走らせた。 (母 p199)

특히 (40)과 같은 경우는 비정물인 「車」가 피사역자인 사역문으로, 차는 스스로 달릴 수 없으며 사람의 행위, 즉 조작에 의해서만 「走る」라는 동작을 실현하게 된다. 이처럼 사역주의 실제적인 행위·조작을 표현하는 사역문은, 의미적인 면에서는 「동작주가 대상을 ~하다」에 근접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II에서는 사역문의 의미적 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역문을 전형적인 유형과 비전형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전형적인 사역문	비전형적인 사역문
지시·명령 허용 방임·방치	상태·현상 유발·인과 피해·자책·공혼 행위·조작

### Ⅲ. 「に」격 사역문과 「を」격 사역문

사역문에서 피사역자는 「に」격 혹은 「を」격으로 표현된다.

(41) a. 先生が学生に走らせた。

b. 先生が学生を走らせた。

(42) a. 太郎が花子に音楽を聞かせた。

\* b. 太郎が花子を音楽を聞かせた。

(41)처럼 「に」격 혹은 「を」격을 모두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42)처럼 어느 한 쪽만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조건에서는 「に」격과 「を」격을 모두 취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한 쪽만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피사역자가 「に」격과 「を」격을 모두 취하는 사역문

(43) a. 子供に行かせた。

b. 子供を行かせた。

(43)은 자동사의 사역문으로, 「行く」는 동작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의지 동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동사 중 의지동사의 경우는 「に」격과 「を」격을 모두 취할 수 있다. 그러나 (43 a)와 (43 b)가 전혀 의미의 차이가 없는 동일한 문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43 a)는 피사역자를 「に」격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지시하여 피사역자의 의지로 동작을 하게 했다는 뉘앙스를 가진다. 반면 (43 b)는 피사역자를 「を」격으로 표현함으로써 피사역자의 의지로 동작을 실현하게 하였다는 느낌보다는, 사역주가 일방적으로 어떤 대상을 동작하게 하였다는 뉘앙스를 가지게 된다.

(44) a. 離乳食を与えるときは、赤ちゃんを毎日同じいすに座らせ、声を掛けることも「今は食事の時間」と意識させることにつながります。(読売新聞 2008.8.15)

b. 離乳食を与えるときは、赤ちゃんに毎日同じいすに座らせ、声を掛けることも「今は食事の時間」と意識させることにつながります。

갓난아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유식을 먹기 위해 스스로 매일 같은 의자에 앉는 행위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4 a)처럼 피사역자를 「を」격으로 표현하여, 사역주가 직접 「赤ちゃん」을 매일 같은 의자에 앉게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44 a)는 「赤ちゃん」을



사역주가 직접 의자에 앉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직접 행위를 했음을 표현할 때에는 「を」 격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44b)처럼 피사역자인 「赤ちゃん」을 「に」 격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역주가 피사역자인 「赤ちゃん」에게 스스로의 의지로 매일 같은 의자에 앉게 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44b)는 사역주의 사역 행위에 의해 「赤ちゃん」이 스스로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요컨대 자동사의 사역문의 경우,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사역 행위를 하여 피사역자의 의지로 행위를 실현하였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に」 격을 취해야 하나, 13) 피사역자의 의지 여부를 표현하지 않고 사역주의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を」 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 3.2 피사역자가 「を」 격만 취하는 사역문

동작에 대한 의지를 가진 자동사의 사역문이라 하더라도, 피사역자가 「を」 격만 취하는 경우가 있다.

13) 益岡隆志・田行則共著(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105 참조

“자동사의 사역문에서 피사역자가 「に」 격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의지동사의 경우로 한정되며, 사역주가 지시하여 피사역자가 행위를 실행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45) a. 体調の悪い生徒を無理やり走らせ死なせてしまった。 (sky.geocities)

? b. 体調の悪い生徒に無理やり走らせ死なせてしまった。

(45a)는 「無理やり」라는 부사를 넣어 사역주가 강제적·강압적으로 대상을 동작하게 하였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피사역자인 「体調の悪い生徒」는 달릴 의사가 없었으나, 사역주가 강제적·강압적으로 달리게 하여 「死なせてしまった」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45b)처럼 피사역자를 「に」 격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역주의 사역 행위인 지시·명령이 강제적·강압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행위는 피사역자의 의지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되므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따라서 피사역자의 의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역주가 강제적·강압적으로 행위를 하게 한 사실만을 강조할 때에는 (45 a)처럼 피사역자를 「を」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6) a. 百円銀貨を三つジャラジャラ鳴らせた。 (楢山 p160)

\* b. 百円銀貨に三つジャラジャラ鳴らせた。

(47) a. この地方に新幹線を走らせる計画 (阪田雪子외 2인 2003 : 119)

\* b. この地方に新幹線に走らせる計画

(46), (47)은 각각 비정물인 「百円銀貨」 「新幹線」이 피사역자인 사역문으로, 「を」격을 취하고 있는 (46 a), (47 a)는 성립하지만, 「に」격을 취하고 있는 (46 b), (47 b)는 비문이 된다. 즉, 자동사 중 의지동사로 사역문을 표현하였더라도 피사역자가 스스로 동작을 실현할 수 없는 비정물인 경우에는 「を」격만을 취한다.

그리고 자동사의 사역문이라 하더라도 피사역자의 의지에 의해 실현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물·사람의 상태만을 표현할 때에는 피사역자를 「を」격으로 나타낸다.

(48) a. 周辺の雨雲が県内に大雨を降らせる場合だ。 (毎日新聞 2009.10.9)

\* b. 周辺の雨雲が県内に大雨に降らせる場合だ。

(49) a. 強い風を吹かせる神様と怖い雷の神様 (毎日新聞 2009.10.27)

\* b. 強い風に吹かせる神様と怖い雷の神様

(50) a. 小さな鉢で可憐な花を咲かせるホトギス (毎日新聞 2009.10.8)

\* b. 小さな鉢で可憐な花に咲かせるホトギス

(48 a)~(50 a)처럼 「雨が降る」 「風が吹く」 「花が咲く」와 같은 자연 현상을 사역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피사역자에 해당하는 자연물 「雨, 風, 花」는 「を」격을 취한다. 「雨, 風, 花」는 비정물이므로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피사역자로 표현할 때에는 「を」격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 현상의 변화를 표현하는 사역문의 경우는, 「雨に降らせる」 「風に吹かせる」 「花に咲かせる」로

표현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51) a. 眼をつむり体をこわばらせて (万延 p164)

\* b. 眼をつむり体にこわばらせて

(52) a. 洋介は薄眼で顎をとがらせて元師を睨みながら (楢山 p112)

\* b. 洋介は薄眼で顎にとがらせて元師を睨みながら

(51 a), (52 a)는 신체 상태의 변화를 표현한 경우로, 「体がこわばる」「顎がとがる」의 상태를 사역주에 시점을 두고 표현하게 되면 행위의 대상인 「体, 顎」는 「を」격을 취하게 된다. 사람은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정물이기는 하나 사람의 신체 부분을 피사역자의 위치에 두게 되면 비정물과 마찬가지로 「を」격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体をこわばらせる」「顎をとがらせる」와 같이 표현하여야 한다.

(53) a. 交通事故で一人息子を死なせた.

\* b. 交通事故で一人息子に死なせた.

(54) a. 搾取をかさね、それが結局、薩摩藩の財政を太らせた。 (司馬 p231)

\* b. 搾取をかさね、それが結局、薩摩藩の財政に太らせた。

(53 a), (54 a) 또한 피사역자의 상태변화를 표현한 사역문으로, 「死ぬ, 太る」와 같은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사역문의 경우에도 변화의 대상을 「を」격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死ぬ, 太る」와 같은 자동사의 사역문에서 피사역자가 「に」격을 취하는 경우는 피사역자에게 의도적으로 「死ぬ, 太る」행위를 실현하게 한 경우로 한정되며,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는 결코 아니다. 즉, 사람의 상태이든 사물의 상태이든 상태의 변화를 사역주의 입장에서 표현하게 되면 그 대상인 사람 혹은 신체, 사물은 「を」격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자동사의 사역문 또한 다르지 않다.

(55) a. なぜあの旗が、桃を嬉しからせるのかね? (万延 p280)

\* b. なぜあの旗が、桃に嬉しからせるのかね?

(56) a. のっけからあなたたちを驚かせたり、白けさせたりするのは本意ではありませんが、

(あなた p39)

\* b. のっけからあなたたちに驚かせたり、白けさせたりするのは本意ではありませんが、

「嬉しがる, 驚く, 白ける」는 감정을 표현하는 자동사이다. (55 a), (56 a)와 같이 감정의 주체인 「桃, あなたたち」를 피사역자로 표현하고, 사역주가 피사역자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켰다고 표현할 때에는 피사역자를 「を」격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사역주는 피사역자의 심리·감정을 직접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행위를 하게 되며, 「を」격으로 표현되는 피사역자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다.

요컨대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자동사의 사역문은, 「を」격이 피사역자임과 동시에 변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sup>14)</sup> 피사역자에게 스스로의 의지로 동작을 실현하게 하는 「に」격 사역문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동작의 대상인 「を」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타동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14) 佐藤里美(1986), pp105~106 참조

“무의지적인 자동사로부터 파생된 사역문은 피사역자를 「を」격으로밖에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변화의 「主体」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잃고 「客体」로서의 기능만을 하기 때문이다.”

(57) a. 父親は娘を彼に会わせた. (阪田雪子·倉持保男 1980 : 267)

\* b. 父親は娘に彼に会わせた.

아울러 「人に会う」와 같이 행위의 대상이 유정물이고 원래 「に」격을 필요로 하는 동사의 사역문은 가능한 격조사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피사역자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으므로, 피사역자를 「を」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57 a)처럼 피사역자를 「を」격으로 표현하고, 「に」격은 피사역자의 행위 대상을 표현하게 된다.<sup>15)</sup>

### 3.3 피사역자가 「に」격만 취하는 사역문

타동사의 사역문은 「가격(사역주)+に격(피사역자)+을격(동작의 대상)+동사의

사역형」 16)의 형태를 취한다. 즉 타동사 사역문에서 피사역자는 「に」 격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58) a. ムカデに指を咬ませた子供の時分にしても, (万延 p372)

\* b. ムカデを指を咬ませた子供の時分にしても,

(59) a. 俺、女の口に金を出させるのはイヤだよ, (檀山 p169)

\* b. 俺、女の口を金を出させるのはイヤだよ,

(60) a. やがて夫に毒を飲ませるという犯行を犯してしまいます。 (あなた p69)

\* b. やがて夫を毒を飲ませるという犯行を犯してしまいます。

「咬む, 出す, 飲む」는 타동사로 (58 a), (59 a), (60 a)는 타동사의 사역문이다. 그런데 (58 b), (59 b), (60 b)와 같이 피사역자가 「を」 격을 취하게 되면, 피사역자가 행하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を」 격과 중복이 된다. 타동사는 원래 「を」 격의 대상을 가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를

15) 阪田雪子・倉持保男(1980), p267

16) 益岡隆志・田行則共(1992), くろしお出版, p105

「に」 격으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타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를 「に」 격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 사역문에서 피사역자가 취하는 격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동사와 타동사, 의지 동사와 상태 동사, 유정물과 비정물별로 각각 나누어 「に」 격을 취하는지 「を」 를 취하는지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자동사			타동사
	의지동사		상태동사	
	유정물	비정물		
に	○			○

	동작의지 표현			
을	○ 직접적/강제적	○	○	

#### IV. 자동사 사역문과 타동사 사역문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할 때, 타동사는 행위의 대상을 가지는 동사로 「을」 격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자동사는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대상을 가지지 않는 동사로서 일반적으로 「을」 격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사의 사역문은 타동사와 마찬가지로 「을」 격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자동사의 사역문은 타동사문과는 분명 다른 문법적 형태이므로, 「을」 격이 나타내는 대상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타동사문과 자동사의 사역문이 「을」 격을 취하는 경우, 어떤 상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타동사 사역문과 타동사문의 구문적 차이를 검토하고, 자동사 사역문과 타동사 사역문의 특징을 정리해보려 한다.

## 4.1 자동사의 사역문

### 4.1.1 자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는 경우

(61) a. 木が倒れる [자동사]

b. 木を倒す [타동사]

(61 a)처럼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진 자동사의 경우는 주체가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 (61 b)와 같이 타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62) a. 花が咲く [자동사]

b. 花を咲かせる [사역문]

그러나 (62 a)와 같이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의 경우는, 동작이든 상태이든 대상의 변화를 타동사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62 b)처럼 사역으로 표현하게 된다.

(63) a. 赤ちゃんがベビーカーに座る.

b. 赤ちゃんをベビーカーに座らせる.

(63 a)는 동작의 주체가 「赤ちゃん」인 자동사문이다. 그런데 (63 b)처럼 「赤ちゃん」을 동작의 대상으로 삼고, 동작주에 시점을 두고 표현하고자 하면 자동사에 대응하는 타동사가 없기 때문에 사역형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는 「を」격이 피사역자를 표현하는 것이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행위의 대상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자동사의 사역문이 타동사문의 역할을 대행하더라도, 분명 자동사의 사역문과 타동사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64) a. 無灯火・ブレーキ故障の自転車に子供は乗らないください。

b. 無灯火・ブレーキ故障の自転車に子供を乗らせないください。



c. 無灯火・ブレーキ故障の自転車に子供を乗せないてください。

(64a)는 행위의 주체인 「子供」에게 「自転車に乗る」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사역문인 (64b)는 피사역자인 「子供」에게 「自転車に乗る」 행위를 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 즉 고장 난 자전거에 「子供」가 「乗る」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64c)처럼 타동사문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행위의 주체에게 대상인 「子供」를 태우지 말라는 뜻이 되므로, (64b)의 사역문과는 명확한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 사역문인 (64b)는 자동사문인 (64a)와 마찬가지로 「子供」가 「自転車に乗る」 행위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지만, 타동사문인 (64c)의 경우에는 「子供」가 「自転車に乗せる」 행위를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自転車に乗せる」 행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자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행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타동사문과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행위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비정물이 피사역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5) ゼリーを冷蔵庫に入れて固ませる (青木伶子 1977 : 114)

(66) 氷のかけらを口の中で溶けさせる

(65), (66)는 비정물인 「ゼリ, 氷」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사 사역문으로, 「ゼリ」와 「氷」는 스스로 「固まる」「溶ける」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青木(1977)는 「비정물이 가지는 동작 실현 능력·본성은 유정물의 의지·주체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정물이라 하더라도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자동사의 사역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역문은 그 사물이 가진 성질이 동작과 무관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65), (66)의 「冷蔵庫に入れて」「口の中で」와 같이 비정물이 스스로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더불어 표현하는 것이 문장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요컨대 「ゼリーを固める」「氷を溶かす」는 동작주의 행위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65), (66)과 같이 자동사의 사역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ゼリ」「氷」가 스스로 행위를 실현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피사역자가 스스로 동작을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역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 4.1.2 자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진 자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가 스스로 동작을 실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어가 동작주가 되는 타동사문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자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지 않는 예이다.

(67) a. 唇の端からは唾のまざったウイスキーがこぼれる。

\* b. 唇の端からは唾のまざったウイスキーをこぼれさせた。

17) 青木伶子(1977), p114

c. 唇の端からは唾のまざったウイスキーをこぼした。 (万延 p21)

(68) a. タバコの灰が至る所に落ちる

\* b. タバコの灰を至る所に落ちさせる

c. タバコの灰を至る所に落とす (あなた p89)

비정물인 「ウイスキー」「灰」는 스스로 의지로 「こぼれさせる」「落ちさせる」할 수 없으므로 (67 b), (68 b)와 같이 자동사의 사역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67 a), (68 a)와 같이 자동사문으로 현상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행위자의 시점에서 표현한다면 (67 c), (68 c)와 같이 타동사문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피사역자가 유정물이라 하더라도 동작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사의 사역문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 (69) a. 生後1ヶ月の赤ちゃんがバイクに乗る。  
 \* b. 生後1ヶ月の赤ちゃんをバイクに乗らせる。  
 c. 生後1ヶ月の赤ちゃんをバイクに乗せる。

「生後1ヶ月の赤ちゃん」은 행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유정물이기는 하나,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으로 「バイクに乗る」 행위를 실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69 a)의 자동사문의 경우도 「バイクに乗る」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라면 이해가 되나, 만약 「生後1ヶ月の赤ちゃん」의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69 b)와 같이 자동사의 사역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生後1ヶ月の赤ちゃん」이 스스로 「バイクに乗る」 행위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69 c)처럼 타동사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타동사문의 경우는 대상의 동작 실현 능력이나 의지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대상물이 유정물이든 비정물이든 관계없이 동작의 대상으로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피사역자가 동작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동사의 사역문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2 타동사의 사역문

### 4.2.1 타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는 경우

타동사는 「대상을 ~하다」로 동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다. 따라서 타동사의 사역문이란 동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작주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70) a. いまや自分の支配下にある事務所で髪を刈らせている (万延 p324)  
 b. 事務所の人が髪を刈る  
 (71) a. 親父が、ニューだからなかなか俺にいじらせねえんだ、 (楢山 p127)  
 b. 俺が(物)을이じる  
 (72) a. 俺、女の口に金を出させるのはイヤだよ、 (楢山 p169)  
 b. 女の子がお金を出す  
 (73) a. ムカデに指を咬ませた子供の時分にしても、 (万延 p372)

b. ムカデが指を咬む

(74) a. 先生は奥さんを呼んで、必要の金額を私の前に並べさせてくれた。(こころ p61)

b. 奥さんが商品を並べる

「刈る, いじる, 出す, 咬む, 並べる」는 「を」 격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므로, (70 a)~(74 a)는 타동사의 사역문이다. 타동사문인 (70 b)~(74 b)의 동작주가 (70 a)~(74 a)의 사역문에서는 피사역자인 「に」 격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타동사의 사역문에는 「に」 격의 피사역자와 더불어 행위를 도모하는 사역주가 첨가되므로, 동작주만 필요한 타동사문과는 다른 구문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타동사문은 동작주가 하나이지만, 타동사의 사역문은 사역행위를 하는 동작주와 실제 행위를 실행하는 동작주를 함께 가진다. 따라서 타동사문의 동작주는 사역문의 주체인 사역주에게 사역 작용을 받는 피사역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2.2 타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75) a. 地震が関東を襲った翌日、 (毎日新聞 2009.6.16)

\* b. 地震に関東を襲わせた翌日、

(76) a. 台風がこの地域に被害を与えた。 (孫東周 2005 : 182)

\* b. 台風がこの地域に被害を与えさせた。

(75 a), (76 a)의 타동사문을 (75 b), (76 b)처럼 사역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타동사의 사역문이란 동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작주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75 a), (76 a)의 타동사문은 「が」 격 명사가 비정물이고, 「が」 격 명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사역문인 (75 b), (76 b)는 비문이 되는 것이다. 18)

그러나 만약 타동사문의 「が」 격 명사, 즉 사역문에서의 「に」 격 명사가 비정물이라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의지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역문이 성립할 수 있다.

(77) 中国に日本を認めさせようとしたのでしょうね。

(司馬 p76)

(78) この梅雨は、ぼくの体に微妙な不具合を起こさせるんです。(毎日新聞 2009.7.2)

(77), (78)도 마찬가지로 피사역자가 비정물인 타동사의 사역문이다. 그러나 「中国」이라는 나라의 의지·의도로 「認める」라는 동작을 실현할 수 있고, 「ぼくの体」의 의지·의도로 「不具合を起こす」라는 동작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사역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75b), (76b)의 사역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피사역자인 「に」격 명사가 비정물이라서가 아니라, 피사역자의 의지로 실행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75a), (76a)의 타동사문은 「関東は地震に襲われた」「台風でこの地域は被害を受けた」와 같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비정

18) 孫東周(2005), p159 참조

물의 의지에 의해서 실현된 행위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동작을 실현하려는 의지·의도를 가진 피사역자에게 그 동작을 실행하게 하는 타동사의 사역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대립하는 타동사가 없는 자동사의 경우는 사역문이 타동사의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대립하는 타동사가 있는 자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가 스스로 행위를 실현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반대로 행위 의지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타동사문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사역자가 스스로 동작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듯, 타동사의 사역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사역자에게 동작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せる」 타동사문과 사역문의 상관관계

일본어의 사역 표현은 「-せる」라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せる」의 형태를 가진 타동사 또한 존재하므로, 형태적인 특징만으로는 타동사인지 사역 표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79) 好意にみちた笑い声をあびせる。

(万延 p187)

(80) a. 母親が子供に薬を飲ませる。

b. たから亭という、矢張り酒を飲ませる家が一軒あった。

(青空文庫, 宮本百合子『小村淡彩』)

(79)의 「浴びせる」는 「-せる」의 형태를 가진 타동사로, 「浴びる」의 사역형인 「浴びさせる」와 형태상으로도 구분이 된다.

그러나 (80)의 「飲ませる」는 「薬を飲ませる」「酒を飲ませる」의 형태만으로는 사역문인지 「-せる」타동사문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飲ませる」는 「飲む」의 사역 형태이기도 하지만 「-せる」타동사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a)의 사역문과 (80b)의 「-せる」타동사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문의 형태적인 면과 의미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에 사역문과 「-せる」타동사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고찰해보고, 형

태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역 형태와 동일한 「-せる」 타동사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 5.1 형태적인 면

타동사 사역문은 「(사역주)가+(피사역자)に+(대상)を+~せる」의 구문적 특징을 가지므로, 피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역문이다. 따라서 사역주의 사역 작용

19) 「-せる」의 형태를 가진 타동사를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せる」 타동사로 축약하였다. 에 의해 실제 동작을 하게 되는 피사역자를 「に」격으로 표현하며, 「を」격은 피사역자가 동작을 할 대상이 된다. 즉, 타동사의 사역문은 「누가/무엇이」, 「누구에게/무엇에게」, 「어떤 대상을/무엇을」, 「동작하게 하다/변화하게 하다」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せる」 타동사문은 「が」격의 주어와 동작주이므로 「を」격의 대상은 필요하나 피사역자는 필요하지 않다.

- (81) a. 私達に食わせるものを買いに (こころ p215)  
b. 二人の子供を、自分の腕で食わせる覚悟をしてその方法を見つけるか  
(青空文庫, 宮本百合子 『我らの誌上相談』)

(81a)는 「사역주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게 하다」라는 뜻으로 타동사 사역문의 구문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즉 (81a)는 피사역자인 「私達」를 「に」격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역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1b)는 사역주의 사역 작용에 의해 동작을 실현할 피사역자를 가지지 않는다. (81b)의 「食わせる」는 동작주가 대상인 「二人の子供」을 자신의 능력으로 「養う」라는 뜻의 「-せる」 타동사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食う」는 타동사이므로 사역문으로 표현할 때에는 피사역자를 「に」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に」격의 피사역자를 가지지 않는 (81b)는 「-せる」 타동사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타동사의 사역문과 「-せる」 타동사문은 「に」격의 피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문장인지 아닌지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사역문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동사 중 의지 동사의 사역문은 「に」격과 「を」격을 모두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82) a. 娘を塾に通わせている。

b. 心通わせたゾウとの別れ (ctv.co.jp)

(83) a. 自分は戦わずに人に戦わせた。

b. 弁護士が主張を戦わせるとみられる。 (毎日新聞 2009.8.28)

(82a)는 「を」격을 취하고 있으나 「娘に通わせている」의 형태라면 「に」격 또한 취할 수 있다. 즉 「通う」는 동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동사이므로 사역문으로 표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피사역자를 「に」격과 「を」격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82b)는 「通う」행위를 실현할 피사역자를 가지지 않으며, 마음을 주고 받다는 뜻의 「心を通わせる」라는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어 「ゾウ」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せる」타동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83a)는 「に」격을 취하고 있으나 「選手を戦わせた」의 형태라면 「を」격 또한 취할 수 있다. 「戦う」도 동작에 대한 의지를 가진 자동사이므로 사역문인 경우 「に」격과 「を」격을 모두 취할 수 있다. 그러나 (83b)는 행위를 실현하게 할 피사역자를 가지지 않으며, 「が」격의 일방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せる」타동사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자동사 중 의지동사의 사역문인 경우는 피사역자가 유정물이면 일반적으로 「に」격 혹은 「を」격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형태적인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 사역문인지 「-せる」타동사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 5.2 의미적인 면

자동사의 사역문이 「を」격의 피사역자를 취하는 경우는 형태적인 특징만으로 「-せる」타동사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사역문의 의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만 한다.

(84) a. 自分のしたいようにさせてくれば苦痛だ。 (楯山 p135)

b. 今まで鬱積していたものを嫁いじめという形で発散させているのです。  
(あなた p167)

(84 a)는 사역주와 피사역자가 확실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문장의 의미로 미루어보아 피사역자가 「自分」임을 알 수 있고, 「させてくれる」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용을 뜻하는 사역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4 b)는 「発散する」 행위를 하는 주체가 곧 동작주이다. 즉 동작주의 일방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せる」 타동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85) a. 告白はぼうとしていた。それでいて明らかに私の神経を震わせた。 (万延 p45)

b. 洋介はこきざみに足をふるわせて、リズムに合わせてテーブルを叩きながら、  
(こころ p102)

(85 a)는 「告白」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사역자인 「私」의 감정·심리를 변화하게 했다는 유발·인과의 사역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85 b)의 경우는 동작주인 「洋介」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せる」 타동사문으로, 「足をふるわせて」와 「テーブルを叩きながら」가 연속적인 동작임을 알 수 있다. 즉, 다리를 떠는 행동과 테이블을 두드리는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せる」 타동사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역주가 피사역자의 동작 의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피사역자 또한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 혹은 능력·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자동사의 사역문으로 볼 수 없다.

(86) a. 子どもたちは林の中で馬を走らせる (毎日新聞 2009.1.14)

b. 行く先を言ってもろくすっぽ返事もしないで、車を走らせた。 (母 p199)

c. 原稿用紙に鉛筆を走らせる気力もある (毎日新聞 2009.10.23)

(86 a)는 유정물인 동물이 피사역자역인 사역문으로, 피사역자인 「馬」는 사역주의 사역 작용에 의해 「走る」라는 동작을 실현할 수 있다. 즉 「馬が走る」라는 자동사문이 성립하며, 따라서 (86 a)는 자동사의 사역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86 b)은 비정물인 「車」가 피사역자인 사역문으로, 피사역자에게는 동작에 대한 의지는 없지만,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 즉 능력·성질이 있으므로 「走る」라는 동작을 실현할 수 있다. 즉 (86 b)도 「車が走る」라는 자동사문이 성립하며, 따라서 자동사 사역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86 c)의 동작 대상인 「鉛筆」은 「走る」라는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이나 성질이 없으며, 동작주의 동작을 일방적으로 받는 대상으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즉 (86 c)의 「走らせる」는 타동사 「動かす」의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86 c)는 「-せる」타동사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으로 사역문과 「-せる」타동사문의 차이점을 형태적, 의미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다음은 사역형과 「-せる」타동사가 일치하는 경우를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타동사로 병행되는 동사별로 정리한 것이다. 20)

〈표3〉

「-せる」타동사와 자동사의 사역형이 동일한 형태인 경우			
자동사	「-せる」타동사 「-せる」사역형	자동사	「-せる」타동사 「-せる」사역형
浮く	浮かせる	驚く	驚かせる
輝く	輝かせる	通う	通わせる
くらむ	くらませる	空く	空かせる
済む	済ませる	滑る	滑らせる
漂う	漂わせる	散る	散らせる
飛ぶ	飛ばせる	鳴る	鳴らせる
悩む	悩ませる	匂う	匂わせる

濁る	濁らせる	はためく	はためかせる
走る	走らせる	響く	響かせる
降る	降らせる	減る	減らせる
惑う	惑わせる	迷う	迷わせる
巡る	巡らせる	揺るぐ	揺るがせる
湧く	湧かせる	急ぐ	急がせる
絡む	絡ませる	困る	困らせる
利く	利かせる	騒ぐ	騒がせる
死ぬ	死なせる	戦う	戦わせる
弾む	弾ませる	震う	震わせる
喜ぶ	喜ばせる	酔う	酔わせる
泳ぐ	泳がせる	曇る	曇らせる
燻る	燻らせる	忍ぶ	忍ばせる
楽しむ	楽しませる	退く	退かせる
泣く	泣かせる	狂う	狂わせる
咲く	咲かせる	添う	添わせる

<표3-1>

「-せる」 타동사와 타동사의 사역형이 동일한 형태인 경우			
타동사	「-せる」 타동사 「-せる」 사역형	타동사	「-せる」 타동사 「-せる」 사역형
聞く	聞かせる	食う	食わせる
食らう	食らわせる	知る	知らせる
掴む	掴ませる	飲む	飲ませる
習う	習わせる	読む	読ませる
やる	やらせる	覗く	覗かせる
握る	握らせる	する	させる

<표3-2>

「-せる」 타동사와 자동사·타동사의 사역형이 동일한 형태인 경우
-------------------------------------

자동사 · 타동사	「-せる」 타동사 「-せる」 사역형	자동사 · 타동사	「-せる」 타동사 「-せる」 사역형
言う	言わせる	働く	働かせる
怒る	怒らせる	持つ	持たせる

20) 金田一京助 · 柴田武 · 山田明雄 · 山田忠雄(1993), 『新明解国語辞典』, 三省堂 참조

## VI. 결론

사역문은 타동사문과의 연속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법 형식이다. 따라서 사역문만이 가지는 고유의 문법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일본어 사역표현의 의미적인 특징과 구문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타동사문과의 상관 관계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어 사역 표현의 의미적 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역주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 사역 작용을 받아 피사역자가 행위를 한 것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전형적인 사역문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즉 전형적인 사역문에서는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행위를 도모하거나 허용하는 간접행위만을 하며, 실제적인 동작주는 피사역자이다. 그러나 사역주가 동작주로서 직접 행위를 하거나, 사역의지와 무관한 행위가 상대에게 어떠한 결과나 심리를 초래했음을 표현하는 경우를 비전형적인 사역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비의지적인 상태·현상을 표현하는 사역문도 비전형적인 사역문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 ① 전형적인 사역문에는 지시·명령, 허용, 방임·방치의 의미적 용법이 있었다.
- ② 비전형적인 사역문에는 상태·현상, 유발·인과, 피해·자책·공훈, 행위·조작의 의미적 용법이 있었다.

2) 사역문에서 피사역자가 취하는 「に」 격과 「を」 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 ① 자동사 중 의지동사의 사역문은 「に」격과 「を」격을 모두 취할 수 있다. 단, 피사역자의 동작 의지 여부를 표현하지 않고 사역주가 피사역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이거나 강제적인 행위를 한 사실만을 표현할 때에는 「을」격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또한 이러한 특성상 피사역자가 동작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비정물인 경우는 「을」격만을 취한다. 그리고 피사역자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자동사의 사역문도 변화의 대상인 피사역자를 「을」격으로 표현한다. 「に」격은 피사역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다.
- ② 타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가 「に」격을 취하였다. 타동사의 사역문에 있어 「을」격은 피사역자가 행하는 동작의 대상이다.

3) 자동사 사역문과 타동사 사역문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 ①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의 경우는, 대상의 변화를 타동사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사역문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진 자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가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성질로 행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타동사문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피사역자가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성질로 행위를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사의 사역문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타동사문으로 표현한다.
- ② 타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사역자에게 동작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사역자의 동작 의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동사의 사역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역문과 「-せる」 타동사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 ① 타동사의 사역문은 피사역자를 「に」격으로 표현하므로, 타동사의 사역형과 「-せる」형이 동일하더라도 「に」격의 피사역자가 없으면 타동사의 사역문으로 볼 수 없으며, 「-せる」 타동사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자동사 중에서 의지동사의 사역문인 경우, 피사역자가 유정물이면 일반적으로 「に」격 혹은 「을」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피사역자를 가지지 않고 동작주의 행위 대상만이 나타나 있다면, 이는 「-せる」 타동사문

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자동사의 사역문이 「을」 격을 취하는 경우는 형태적인 특징만으로 「-せる」 타동사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사역문의 의미적인 측면, 즉 사역주와 피사역자, 술어까지 모두 고려하여야만 한다. 의미적인 면에서도 동작주의 일방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せる」 타동사문으로 간주한다. 또한 자동사의 사역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역주가 피사역자의 동작 의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피사역자 또한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 혹은 능력·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자동사의 사역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せる」 타동사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본어 사역 표현에 대한 연구는 타동사문과의 연속적인 관계를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역문과 타동사문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역 표현과 타동사문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사역 표현의 다의성을 시사하고, 사역문과 타동사문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 특히 「-せる」 타동사문의 경우는 혼란이 큰 부분이므로 일본어 학습현장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와 함께 병행하고자 했던 「-す」 「-させる」 동사에 관한 연구는 다음 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외국 문헌》

#### < 단행본 >

- 天野みどり (2002), 『文の理解と意味の創造』, 笠間書院
- 池上喜彦 (1981), 「使役と受身の構造型」 『「する」と「なる」の言語学』, 大修館書店
- 阪田雪子・倉持保男 (1980), 「使役を表す言い方」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④-文法Ⅱ』, 国際交流基金
- 阪田雪子・新屋映子・守屋三千代 (2003), 「第12課ラレルとサセル」 『日本語運用 文法-文法は表現する』, 凡人社
- 富田隆行 (1995), 「45.使役の表現」 『基礎表現50とその教え方』, 凡人社
- 中山桂一 (1998), 「4章 助詞と構造変換」 『日本語のかたち-対照言語学からのアプローチ』, 東京大学出版会
- 益岡隆志・田行則共著 (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 森田良行 (1995), 『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日本語の視点』, 創拓社
- 森田良行 (1988), 『日本語の類意表現』, 創拓社
- 森田良行 (2002), 『日本語の文法発想』, ひつじ書房
- 吉岡泰夫 (2006), 「第7章敬語についての規範意識」 『国立国語研究所報告-言語活動における「配慮」の諸相』, くろしお出版

< 사전류 >

金田一京助・柴田武・山田明雄・山田忠雄(1993), 『新明解国語辞典』, 三省堂

< 논문 >

- 青木伶子 (1977), 「使役-自動詞・他動詞との関わりにおいて」須賀一好・早津恵美子編『日本語研究資料集-動詞の自他』(第1期第8巻), ひつじ書房
- 井上和子 (1977), 「変形文法と日本語(下)-意味解釈を中心に」須賀一好・早津恵美子編『日本語研究資料集-動詞の自他』(第1期第8巻), ひつじ書房
- 黒田成幸 (1990), 「使役の助動詞の自立性について」国広哲弥教授古稀記念論文集編集委員会編『国広哲弥教授古稀記念論文集-文法と意味の間』, くろしお出版
- 佐藤里美 (1986), 「使役構造の文-人間の人間に対するはたらきかけを表現するばあい」言語学研究会編『言語学研究会の論文集-ことばの科学』(その1), むぎ書房
- 佐藤里美 (1990), 「使役構造の文(2)-因果関係を表現するばあい」言語学研究会編『言語学研究会の論文集-ことばの科学』(その4), むぎ書房
- 野田尚史 (1991), 「文法的なヴォイスと語彙的なヴォイスの関係」須賀一好・早津恵美子編『日本語研究資料集-動詞の自他』(第1期第8巻), ひつじ書房
- 早津恵美子 (1989), 「有対他動詞と無対他動詞の違いについて-意味的な特徴を中心に」須賀一好・早津恵美子編『日本語研究資料集-動詞の自他』(第1期第8巻), ひつじ書房
- 早津恵美子 (2000), 「もたせるにおける使役動詞性のあり方」山田進・菊地康人・初山洋介編『国広哲弥教授古稀記念論文集-日本語意味と文法の風景』, ひつじ書房
- 松下大三郎 (1924), 「動詞の自他被使動の研究」, 須賀一好・早津恵美子編『日本語研究資料集-動詞の自他』(第1期第8巻), ひつじ書房

《 한국문헌 》

< 단행본 >

孫東周 (2005), 『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 제이앤씨

<논문>

- 김계연 (2000), 「日本語 使役助動詞 ‘させる’의 자립성」 『한양일본학보』 (제8집), 한양일본학회
- 권승립 (1994), 「일본어 사역표현 재고:문법이론의 교육적 활용을 지향하며」 『일본연구』 (제2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 유장옥 (1997), 「動詞의 自他對立과 他動詞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제4집), 일본어문학회
- 이정숙 (2003), 「日本語動詞における自動・他動および使役の対応に関する一考察」 『일어일문학』 (제1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예문 출전

- 『あなたの中の秘密のあなた』, 遠藤周作, P H P 文庫, 1991
- 「こころ」 『夏目漱石全集 8』, 夏目漱石, ちくま文庫, 1993
- 『司馬遼太郎が語る日本-未公開講演録Ⅱ』, 司馬遼太郎, 朝日新聞社, 1997
- 『樫山節考』, 深沢七郎, 新潮文庫, 1991
- 『母』, 三浦綾子, 角川書店, 1994
- 青空文庫 [www.aozora.gr.jp](http://www.aozora.gr.jp)
- 中里介山 『大菩薩峠 椰子林の巻』, 1941
- 宮本百合子 『我らの誌上相談』, 1932
- 宮本百合子 『小村淡彩』, 1926
- Edgar Allan Poe, 森鷗外訳 『病院横町の殺人犯』, 1913
- 毎日新聞 [www.mainichi.jp](http://www.mainichi.jp)
- 讀賣新聞 [www.yomiuri.jp](http://www.yomiuri.jp)
- スポーツナビ [sportsnavi.yahoo.co.jp](http://sportsnavi.yahoo.co.jp)

www.sky.geocities.jp

www.ueis.ed.jp

www.ctv.co.jp

「叫ぶ詩人の会」の歌, 「抱きしめたい」

<Abstract>

**A Study on Causative Expressions in Japanese**

**Han Hyo-sim**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ung-han**

In Japanese, causative express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form of 「-せる」 and the fact that a causative sentence can deliver two meanings, which are that of the subject causing a person to do a certain act and a person carrying out an act.

A look at many causative sentences, however, reveals the existence of more diverse types in addition to the general "causative" meaning. In Japanese, in particular, causative sentences cannot exclude a continuity with transitive sentences. In fact, the boundaries between the two are sometimes blurry. Especially, transitive sentences of 「-せる」 are most confused with causative ones.

Causative sentences have a clearly different grammatical form from transitive ones, which calls for a need to correctly understand the unique grammatical

functions of causative sentences in order to use causative expressions more correctly. Thu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ausative sentences in Japanese in terms of semantics and syntax and to consider the criteria to distinguish them from transitive sentences.

First, specific cases of causative sentences in Japanese were sorted out by their types. In typical causative sentences, the subject engages in only indirect acts such as planning or allowing an act for another person, who actually carries out the act. Causative acts are expressed in either active or passive forms and categorized into instructions and orders, permission, and noninterference and negligence. In addition to those typical categories, there are atypical ones, in which the subject carries out an act him or herself or causative sentences express results or psychology unrelated to the causative will or the states and phenomena of objects. The atypical causative sentences are divided into state and phenomena, induction and cause & effect, damage, self-blame, merits, and acts and manipulation.

Second, the case particles used by the person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syntactical characteristics of causative sentences more clearly. While the person carries 「に」 or 「を」 in causative sentences, the person in causative sentences of transitive verbs carries 「に」. Among intransitive verbs, volitive verbs can have both 「に」 and 「を」 in causative sentences, but 「に」 is used only when the person is capable of doing an act him or herself. Thus 「を」 is used when the person is expressed as the target of the subject's direct or forced act or the object is lifeless and cannot perform an act. And 「を」 is also used when the person is the target of a change of state.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causative sentences of transitive and intransitive verbs were examined. When an intransitive verb doesn't have its transitive equivalent, the state of the target cannot be expressed with a transitive verb, which is where a causative sentence comes in. But a causative sentence of an intransitive verb that has a transitive equivalent is clearly different from a

transitive sentence in that the person performs an act him or herself. A causative sentence of a transitive verb requires the person to have the will to perform an act. When his or her will for the act cannot be recognized, there is no causative sentence.

And fourth, transitive and causative sentences of 「-せる」 were compared. When a sentence only contains the target of the person's act instead of the person of 「に」 despite the same 「-せる」 as a causative sentence of a transitive verb, it can be called a transitive sentence. Even if a sentence has the same 「-せる」 as a causative sentence of an intransitive verb, it is regarded as a transitive sentence since the person cannot perform an act and thus a causative sentence cannot be made. And if a sentence doesn't fall into the semantic usage of a causative sentence and expresses only the one-sided act of the subject, it is regarded as a transitive sentence.